

'신의 퀴즈' 종영까지 2회, 류덕환 어린시절 무슨 일이?



'신의 퀴즈:리부트' 판도라의 상자 드라마가 열린다. OCN 수목드라마 '신의 퀴즈:리부트' (연출 김종혁, 극본 김진희, 크리에이터 박재범,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프로듀싱)가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즌제 장르물의 레전드답게 시작부터 희귀병과 미스터리를 환상적으로 직조한 전개를 펼쳐온 '신의 퀴즈:리부트'는 희전복 지원과 한주그룹의 관계, 현상필(김재원 분)이 그리는 복수의 윤곽이 드러나며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진실의 결정적 퍼즐이 될

복수의 윤곽 드러나며 판도라의 상자 열려

진실은 빅브레인 한진우의 기억에 있다? 희전복지원에서 과연 무슨 일이?

한진우는 개조한 사제뇌파장치를 이용해 유년 시절 기억의 일부를 찾아냈다. 놀랍게도 기억의 조각 속에는 희전복지원과 서실장(김호정 분)이 있었다. 한진우는 자신을 증거로 과거 한주그룹이 희전복지원 아이들에게 MAO-A 결핍증 신약 실험이라는 비윤리적 악행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억은 더 큰 파장을 예고했다. 악행의 촉이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서실장은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알고 나면 담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진우가 사제뇌파장치로 완벽히 찾지 못한 기억을 복구할 수 있을지, 기억 속에 묻어둔 비밀은 무엇인지 진실의 도화선이냐 놓쳐선 안 될 관련 포인트다.

마지막 복수만을 남겨둔 현상필, 한진우와의 연결고리는?

희전복지원 출신인 현상필은 아

이들의 복수를 위해 광기 어린 살인을 이어왔다. 바이오 해킹을 통해 한진우조차 놀랄 정도의 정교한 바이오 시스템을 만들어 복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상필. 그의 목적은 서실장과 한지수 회장 그리고 과학자(김준현 분)이다. 이 과정에서 조영실(박준면 분)이 의문의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정승빈(윤보라 분)과 현상필의 관계가 밝혀지는 등 법의학 사무소에 드러운 위기 뒤에도 현상필이 있었다. 한편, 한진우는 과거 자신을 아는 듯한 현상필에 의문을 품고 기억을 찾기 시작했고 유년 시절 희전복지원에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모든 진실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한진우와 현상필, 희전복지원과 희귀병을 매개로 이어진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파악할 수 없는 전면전의 긴장감을 증폭했다.

가장 완벽한 시스템 코다스의 이상징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완벽

한 시스템으로 여겨졌던 코다스. 하지만 그 뒤에 한주그룹 서실장과 과학혁명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코다스를 둘러싼 진실의 파괴력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던 코다스엔 이상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진우의 컴퓨터에 연결돼 일거수일부족을 파악하며 한진우를 학습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한진우가 들어가려하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진우를 반기기까지 했다. 이는 빅브레인 한진우가 빅데이터 코다스의 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 코다스와 조전현 한진우 사이의 미스터리가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 전망이다. '신의 퀴즈:리부트' 김종혁 감독은 "첫 회부터 치밀하게 깔아온 이야기가 하나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진우와 코다스의 미스터리한 관계부터 현상필의 복수, 그 끝자리에서 조우하게 될 두 사람의 연결고리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조각 하나만 어긋나도 다른 그림이 맞춰질 수 있는 상황.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9일 오후 11시 방송.

40% 넘본다는 '하나뿐인 내편' 고구마 여주로 되겠다

역시 육하면서 보는 드라마다.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자자하다. 6일 방송된 '하나뿐인 내편'에서는 부녀 관계가 틀렸던 강수일(최수종 분)-김도란(유이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수일 김도란은 영문도 모를 채 한밤 중 회장실로 불려갔음에도 왕희정(박상원 분)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결국 왕희정이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내민 이후에야 강수일 김도란은 부녀 관계임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왕희정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했다. 분노한 왕희정은 강수일에게 당장 일을 그만둘 것을 지시했고, 두 사람이 만나지 말 것까지 요구했다. 이에 강수일의 퇴사 후 지금보다 더 편하게 아빠를 볼 생각에 들었던 김도란은 폭풍 오열했다. 부녀 관계란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생이별 위기에 놓인 두 사람. 물론 탑상 악녀 장다아(윤진이 분)에 의해 부녀 관계란 사실이 들 통나긴 했지만, 그동안 강수일 김도란의 이슬이슬한 행동은 시청자들

의 가슴을 줄이게 만들었다. 새벽에 풀래 나와 만나거나 수산시장을 같이 가는 것은 물론, 집 근처까지 다정하게 팔짱끼고 다녔다. 당장 가족들의 눈에 띄어도 억울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제야 들킨 것이 이상할 정도다. 여기에 극 초반만 해도 매사에 딱 부러졌던 여주인공 김도란이 갈수록 답답해지고 있어 시청자들을 가슴치게 만들고 있다. 강수일과의 관계를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폐 모친 소양자(임예진 분)에게는 매번 휘둘리고 있다.



또 여전히 남편을 '본부장님'이라 부르고, 자신을 무시하는 손아래 등서 장다아도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고 있다.

병풍같은 김도란 남편 왕대륙(이장우 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왕대륙은 이제서야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설정을 놓고 대립, 결혼 후 첫 부부 싸움을 했다. 김도란은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위기에 놓이며 시청자들을 또 답답케 했다. 드라마가 후반부를 향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청자들은 '하나뿐인 내편'을 고구마 드라마라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신과 드라마의 전형적인 구조다. 초반부터 설정이 진부하던 평가를 받았던 '하나뿐인 내편'은 점점 더 70~80년대 신과 드라마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열연을 펼치고 있는 '연기의 신'급 배우들이 아까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내편' 시청률은 아이러니하게도 37.7%(닐슨스코어, 전국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시청률을 또 경신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육하면서 보는 드라마'로서는 성공적인 성적표다. KBS 주말극 평균 시청률 자체가 높은 것도 한 몫 했다. 이제 '하나뿐인 내편'은 4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6회 연장 역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대에 동떨어진 전개가 속출하는 내용 면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강수일의 살해 혐의와 관련, 마지막 판도라 상자가 남아있는 가운데 '하나뿐인 내편'이 40%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청자 체증을 확 기리었길 막판 시나리오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헤미안랩소디', 골든글로브 작품상·남우주연상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열풍은 국내 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도 집어 삼켰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2관왕의 영예를 기록했다.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앤디 샘버그와 산드라오가 진행을

맡았다. '그린북'이 76회 골든글로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그린북'은 뮤지컬 코미디 부분 작품상을 포함해 남우조연상(마허살라 알리)과 각본상을 받았다. 드라마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은 '더 와이프'의 클렌 클로즈가 차지했다. 76회 골든글로브에서 가장 많은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는 닉 체니 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 '바이스'. '바이스'는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크리스천 베일)만 수상하면서 1관왕에 그쳤다. '그린북'의 수상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넷플릭스의 강세였다. 알

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는 외국어 영화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TV시리즈 부문에서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코민스키 메소드'가 남우주연상(마이클 더글라스)과 작품상을 받았다. 장편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기대를 모았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미라이의 미라이'는 상을 받지 못했다. 대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애니메이션 상의 주인공이 됐다. 외국어영화상 후보였던 그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은 '로마'에 밀려 수상에 실패했다. 레이디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스타이즈 본'이 주제가상을 받았다. 음악상은 '퍼스트맨'이 수상했다. 각본상은 19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천재뮤지션 돈 셸리와 다혈질

운전자 토니의 여행을 그린 '그린북'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TV시리즈 부문에서는 산드라오의 여우주연상 수상이 주목을 받았다. 산드라오는 TV시리즈 드라마 부문에서 줄리아 로버츠, 엘리자베스 모스 등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했다. 수상 직후 산드라오는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남겼으며 마지막에는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호메이지' www.honam.com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음력 12월 3일)

<p>▶ 쥐 특유의 유연성을 잃고, 판단력에 혼란이 생기기 쉬우니 신중히 행동하라. 그, 사, 오 성씨는 세심한 배려가 일을 돕는다. 당분간 보업에 정신을 쏟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보류하라. 애정은 상대에게 더욱더 충실히 할 것.</p>	<p>▶ 돼지 여기저기서 큰 의뢰가 들어와 수확할 운이다. 봉급 생활자는 먼 곳으로 영전하고, 기본도 새로워지는 날이다. 출장이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떠나라. 일은 호전하고, 성과도 차질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p>	<p>▶ 원숭이 모든 일이 밝고 화려하게 전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러블이나 실수가 많다. 모든 일에 공격보다 수비로 나서라. 새로운 계획을 피하고, 기초를 다지는 데 비중을 두라. 2, 5, 7월생 문서류, 인감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p>
<p>▶ 새끼 성실하게 진행하면 기회를 얻는다. 표면상 화려하지 않지만, 연구하는 일이나 학문에는 진전한다. 주식 등 투기에 손대면 실패수 따르니 주의하라. 4, 5, 6월생은 빨간색이 길.</p>	<p>▶ 돼지 남의 돈으로 구상하던 일을 벌이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궤도를 벗어난 지출을 삼가자. 아내의 불만이 가정 평화를 위협하니 1, 4, 11월생 남자는 자중하라. 애정 갈등을 북쪽 사람에게 상담하라.</p>	<p>▶ 닭 1, 5, 9월생은 고집을 버리면 앞에서 손해를 보나 뒤에서는 소득이 생긴다. 활발히 행동하고 싶은 기분이 강한 날이지만, 순서를 봐야 행동하라. 급진하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그, 사, 오 성씨는 어울리거나 횡재수 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p>
<p>▶ 호랑이 가장 문제를 밖에 알리지 말라. 마음고생은 되겠으나 주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오, 리, 사 성씨는 큰돈을 움직이는 것은 무리다. 교통비 등 지출을 억제해 이겨내라. 간질환, 정신적인 피로 등을 주의하라.</p>	<p>▶ 양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의욕 넘치는 날. 2, 5, 11월생 남자는 기본 만큼 금전적으로 대담해져서 투자나 개축 등 큰돈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저축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그, 사, 오 성씨는 변화나 조급한 기분을 주의하면 쥐, 토끼미 도움을 받겠다.</p>	<p>▶ 개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격이다. 1, 3, 5월생은 자신 걱정이 태산 같구나. 자신이 5, 11월생이면 그 자식에게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면 쓸수록 엉나갈 수. 친구들만 조심스럽게 파악하라.</p>
<p>▶ 토끼 경영자라면 요즘 하는 일을 유지할 것. 샐러리맨은 마음고생 해도 보람이 있다. 그, 사, 오 성씨는 돈의 용도를 잘 생각하자. 동에게 다소 지출하면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니 자린고비라는 별명이 붙지 않도록 주의하라.</p>	<p>▶ 돼지 여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용을 어느 정도로 지니느냐에 따라 행운을 놓치거나 잡을 수 있음을 알라. 매사 하는 척하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그, 사, 오 성씨는 진실이 결여하면 상대는 곧 가버린다. 작은 실수로도 다툼이 있으니 인내할 것.</p>	<p>▶ 돼지 명량한 성격은 좋지만, 자기 과시가 심하면 주위의 빈축을 살 수 있다. 맘수를 줄일 것. 그, 사, 오 성씨 3, 4, 9월생은 이성교제는 진심을 파악하지 않고 허영심으로 상대를 선택한다면 크게 후회할 수. 남쪽 이성이면 문제 안 됨.</p>